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만세!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2호 [루계 제23204호] 주제99(2010)년 9월 9일(목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9월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음악회를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으로 우리 공화국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국경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종수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명국동지, 김원홍동지,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경례를 받으시라》, 《충성의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 판현악과 남성합창 《밀림이 설레인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의 조선아》, 남성합창 《번영하여라로동당시대》, 남성 2중창과 남성합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우리는 빈

터에서 시작하였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말하라 성강의붉은파도여》, 남성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승리의길》, 《조선의행운》, 《천세만세장군님을목숨으로보위하리라》, 《조선의모습》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의 기치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자랑찬로정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혁명의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령도따라 주체혁명업을 대를 이어 끌까지 완성하고 애발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과 투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래

치는 격동적인 음악회를 보면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아래 혁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항로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여 온 자랑찬나날들을 커다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았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이 찬란히 빛나는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강성대국의령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뒤집어노래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흠토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장내는 불도

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관록하고 위력한 예술집단인 공훈국가합창단은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나라의귀중한재산이라고 하시면서 합창단의창작가, 예술

인들이 전투적인 예술창조활동을 더욱 광범위히 벌려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호금도동지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큰물괴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위문전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일

주제99(2010)년 9월 8일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최영림 동지에게 중국의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께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형제적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여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로운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조선인민의 새로운장을 절처놓았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 그리고 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정신을 발양하여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기뻐할만한 성과를 이루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충실히 축원합니다.

중조. 두나라는 산과강이잇닿아있는 친선적인친방입니다.

두나라로세대령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기워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국제정세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두당, 두나라, 두나라인민들의 공동의 귀중한재부로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조선총파와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정신에 따라 두나라 각령역에서의교류와 협조를 실현시키고 중조관계의끊임없는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나라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복리를 가져다주고 본지역의평화와안정을 수호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성번역과인민의행복을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중화인민공화국총당군사위원회주석  
호오방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위원장  
국무원총리  
2010년 9월 8일

베이징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팔레스타이나국가 대통령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타이나국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타이나국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 꽃바구니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타이나국가 특별전권대사가 7일 해당부문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타이나국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조무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주조무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내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태양민족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

9월의 하늘가에 탑홍색공화국기 가 펼쳐졌다.

기세차게 펼려이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볼수록 열마전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와 각지 당대 표호장들에 차넘치던 격정과 환희가 눈앞에 어려오고 우리마냥 티셔오르면 우평창 「만세!」의 활호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이세상 그 누구도 전드릴수 없는 불

례의 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뿐

리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 내나

라, 내 조국강산에 차넘치는 오늘

의 영광은 지금으로부터 62년전

공화국창건의 성포로 온 나라가

끓어번지던 그날의 환희를 방불케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천만민민의 절대적인 지

지와 신뢰를 밟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의 인자하신 모습을 뷔으며 우리는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끌없이 풍성번

영할 김일성조선의 천만년미래를

확신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조선

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조국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하고 지켜낸 혁명의 고귀한

전취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모르며 그런 조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보다 더 위대한분을 모른다.

들이켜보면 사대와 굴욕으로 어辱하고 략후와 린궁으로 어辱한 조선,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만국평화회의장에 끝은 피

뿌려도 하소연할 끗조차 없었던 조선

이 어떻게 그 누구도 함부로 전드

릴수 있는 존엄의 상상봉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사상과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

를 떠나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

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에 빛

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판

이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

세우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지난 국제해방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존엄한 시련

이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경제문화시설들,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도 우리 수령님의 위대하고 스스러운 정도의 자속이 빛나게 새겨져 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누리는 가장 존엄하고 궁지높은 행복한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이 뜨겁게 짓들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그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이 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고 막국노의 처지에서 해매이던 우리 인민이 자주적 인민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된 세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인류역사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기 기적적인 사변이었다.

역사의 그 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전국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에 온 세상에 떨쳤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9. 9절은 우리 민족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수반을 모신 날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30대에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시었다고,

사실 말이 쉽지 30대에 국가수반이 된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일찍이 10대의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인간이 죽을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이겨내시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20세기 우리 조국역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그 어느것이니 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를 빛나 생각할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당당한 전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날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천관과 드넓은 천국들, 철벽으로

다져진 조국의 방선과 전연초소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 76 (1987) 년 10월

가리하는 격렬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자랑하던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을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

를 계시여

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에

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

주제 76 (1987) 년 10월

를 수호할수 있다.



# 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을 따라 배워 부강조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 그쳐 나가자

중앙추모회에서 한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혁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 표자회를 맞으며 사회주의강성 대국건설을 위한 최후돌격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재능 있는 군사정치일군이었던 강건동지의 서거 60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총대로 수령의 사상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의 건군사에 특출한 위훈을 남긴 항일 혁명투사, 강건동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그의 불朽의 투쟁정신과 업적을 감회깊이 들이켜보고 있습니다.

강건동지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수난의 시기에 경상북도 상주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서 자랐습니다.

강건동지는 10살 나던 해에 일제침략자들과 지주놈들의 폭압과 학대속에서 더는 살수 없어 부모를 따라 이국땅인 북만의 네안현으로 이주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었으며 놀들의 애수적인 학살만행에 의해 부모와 동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동단생활을 거쳐 혁명의 길에 들어선 강건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주제 22 (1933)년 4월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믿음과 각별한 관심속에서 당조직성원의 영에 힘입어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치지원으로서 당조직성원의 혁명적정신과 투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세조국건설시기 강건동지는 보안간부훈련소 2소 소장, 민족보위성 부상 경조선인민군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정신과 투쟁을 확장하는데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방침을 관찰하는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바탕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준엄한 혁명전쟁의 포화속에서 혈전의 언덕을 수없이 넘고 헤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 전승하는 미세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인민군부대들의 진격작전을 지휘하다가 주제 39 (1950)년 9월 8일 32살을 일기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강건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지 않았으나 진정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는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반들어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준 값높은 생애였습니다.

강건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나고 수령님의 사상과로선, 명령지시를 겸결히 옹호관철한 찬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였습니다.

아동단절부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흡모해온 강건동지는 수령님께서 친히 북만에 파견해 주신 아동단연대공연을 보고 수령님의 고백한 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었으며 기어이 일제놈들을 죽치고 조국을 헤방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주제 23 (1934)년 10월 항일혁명의 불길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1차 북만

중앙추모회에서 한

원정에 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고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게 된 것은 강건동지의 혁명투쟁과 생애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북만에서 활동하는 부대들의 강화발전과 투쟁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강건동지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실

결출한 형도자이시며 조국해방의 구성, 민족의 히어이시라는 것을 깊이 철학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찰할 때 선교적은 투쟁을 벌려 그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고 광활한 한지대로 진출하여 대규모적인 유격전을 벌릴때 대한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끌끌까지 응호관찰하였습니다.

강건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는 전기 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선로선과 반제공동선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대원들과 함께한 군중들로 무진하니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강건동지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수난의 시기에 경상북도 상주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서 자랐습니다.

강건동지는 10살 나던 해에 일제침략자들과 지주놈들의 폭압과 학대속에서 더는 살수 없어 부모를 따라 이국땅인 북만의 네안현으로 이주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었으며 놀들의 애수적인 학살만행에 의해 부모와 동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동단생활을 거쳐 혁명의 길에 들어선 강건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주제 22 (1933)년 4월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믿음과 각별한 관심속에서 당조직성원의 영에 힘입어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치지원으로서 당조직성원의 혁명적정신과 투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세조국건설시기 강건동지는 보안간부훈련소 2소 소장, 민족보위성 부상 경조선인민군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정신과 투쟁을 확장하는데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방침을 관찰하는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바탕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준엄한 혁명전쟁의 포화속에서 혈전의 언덕을 수없이 넘고 헤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 전승하는 미세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인민군부대들의 진격작전을 지휘하다가 주제 39 (1950)년 9월 8일 32살을 일기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강건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지 않았으나 진정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는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반들어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

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준 값높은 생애였습니다.

강건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나고 수령님의 사상과로선, 명령지시를 겸결히 옹호관철한 찬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였습니다.

아동단절부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흡모해온 강건동지는 수령님께서 친히 북만에 파견해 주신 아동단연대공연을 보고 수령님의 고백한 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었으며 기어이 일제놈들을 죽치고 조국을 헤방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주제 23 (1934)년 10월 항일혁명의 불길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1차 북만

# 조선인민군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대장 김정일동지의 주모사

